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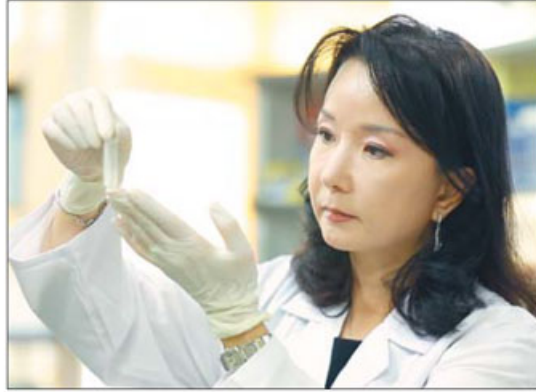
[Biz Trend] 한국의 여성 R&D인력 지원

여성 채용하는 중기·벤처...연구비 지원과 세제 혜택, 우수 연구인력 확보 효과

기사입력 2016.07.15 04:02:04



김희 포스코 인프라그룹장



윤채옥 한양대 생명공학과 교수

지난달 여야 3당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들이 `제4차 산업혁명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모두 여성 이공계 출신으로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국회 차원에서도 산업 측면에서 여성 연구인력 확대가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 연구인력은 어느 수준까지 왔을까. 유네스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 비중은 18.2%로 전 세계 평균(28.4%)과 동아시아 평균(22.6%)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2004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이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여성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적지 않다. 철강업계 첫 여성 엔지니어인 김희 포스코 인프라그룹장, 암세포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는 윤채옥 한양대 생명공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배터리 분야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삼성그룹 개발 분야에서 여성 최초로 김유미 삼성SDI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는 WISE 프로그램이 시작된 데 이어 2013년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가 출범했다. 이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다.

WISET는 여성 연구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에서 여성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비중(14.1%)이 공공연구소(22.9%)나 이공계 대학(23.9%) 등에 비해 낮은데 이는 기업의 여성 인력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에서는 점차 여성 임직원을 위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 속도가 느리다.

WISET는 여성 연구인력을 중소·벤처기업에 매칭시켜주고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인터로조, 유전자분석회사 마크로젠, 데이터베이스 기업 티맥스데이터 등이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한화진 WISET 소장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여성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여성연구원 채용 지원,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복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제 지원이나 조달시장 등에서 여성고용 촉진기업을 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